

종합

국민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

광주시·시교육청 '우수'

전남도·도교육청은 '보통'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이 국민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각각 '매우 우수',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 광주시 교육청은 부패방지 성과에서 '미흡'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5개 항목에서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종합적으로 '매우 우수한 부패방지시책 운영기관'으로 평가됐다.

광주시청은 기관장 노력도와 제도 개선 종합대책, 부패방지 성과 등 3개 부문이 '매우 우수', 그리고 반부패 인

프라 구축과 부패영향 평가,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자율시책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부패방지 성과만 '우수'를 기록했을 뿐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반부패 교육 부문은 '보통', 그리고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자율시책평가 부문에선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문만 '매우 우수'로 나타났을 뿐 대부분 우수와 보통으로 평가됐으며 부패방지 성과 부문은 '매우 미흡'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순천대-경상대 工大 통합 광양에 '연합캠퍼스' 추진

순천대와 진주 경상대 등 영호남 국립대 2곳이 광양시에 양 대학 공과대를 통합한 연합캠퍼스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대는 진주 경상대와 양 대학의 공과대학을 합친 광양 '연합캠퍼스'를 설립해 최대한 빨리 개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캠퍼스는 광양시에 있는 예정 부지 30만㎡에 설립되며, 공과대학 학생 2천여명을 수용하는 규모다.

광양시는 지난 해 부지매입비 200여억원과 운영비 등 10년 동안 1천억원의 시가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글로벌연구중심대학 유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를 대신해 전국 공모를 거쳐 대학을 유치할 경우, 1천억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비해 양 대학은 각 5인오 협의기구를 구성, 최근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다.

양 대학은 광양시의 전국 공모가 시행될 경우, 공과대의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학과를 재배치함과 동시에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학사일정을 꾸릴 계획이다.

양 대학의 공과대 연합캠퍼스 설립이 성공할 경우 자연스럽게 국립대 통합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대 관계자는 "광양시와 인접한 순천대·경상대가 광양만권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연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합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지방선거 불법 난무 선관위, 959건 적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 95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적발한 불법행위 중 62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31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경고(859건), 수사기관 이첩(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배부 관련 위반행위(137건), 시설물설치 관련 위반행위(136건)가 뒤를 이었다.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공무원 선거개입은 33건이었고, 선심관공·교통편의제공(21건), 비방·흑색선전(3건), 유사기관·사조직 설치(1건) 사례 등도 적발됐다. 다만 현 시점(선거일전 128일)을 기준으로 과거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천365건, 2006년은 2천144건이었다.

/연합뉴스



한·인 정상 만나 인도네시아 방한 중인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25일 오후(한국시각)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해 프라티바 파틸(오른쪽) 대통령, 만모한 싱(왼쪽)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적절 국가유공자 993명 적발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천113명 중 3천74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중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예우·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청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4년 부서 공식 회식을 마친 뒤 일부 동료와 따로 '2

차'를 가서 술을 마시다 다쳤지만 이를 회식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로 돌아오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서류를 꾸민다.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공무상 요양비 497만원, 퇴직 후 매월 장애연금 63만원을 받아 온 것은 물론, 자녀교육비 800만원 등의 보훈 혜택도 받았다.

경기 남양주시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릎염을 달래려고 공동모집단체에서 동료들과 축구하다 무릎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임태희노동 광주·전남 방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26~27일 이틀간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임 장관은 26일 오전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

중공업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 갖는다. 이어 목포와 광주 고용지원센터에 들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보험 설명회, 취업 클리닉 등 취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참가자들을 격려한다.

27일에는 지역 언론인과 조찬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야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오늘부터 사업착수 보고회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가 26일부터 이틀간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린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사업은 지금까지 개발된 전당 운영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새로운 시범콘텐츠를 구체화·가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극장

기획안 국제공모 및 프로듀서 캠프 개최 ▲한·중·일·아시안 신화·설화·영웅서사시 번역 및 출판 등 8개 사업에 약 4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수행기관들은 지난해 10월 공모와 12월 사업제안서 평

가를 거쳐서 선정됐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8개 사업의 수행기관, 민간 현장전문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1개 사업당 60분씩 수행기관의 사업 세부 추진계획 발표 및 전문가와 시민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진단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각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전당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치 소재 영화 '식객' 28일 개봉 '김치 증가광주' 전국에 알린다

광주를 주무대로 촬영된 영화 '식객-김치전쟁'이 오는 28일 개봉. 김치 중추도시인 광주를 전국에 알리게 된다.

대한민국 대표 만화인 허영만 화백의 '식객'은 지난 2007년 영화로 제작돼 전국 300만 관객의 눈길을 모았으며, 2008년에는 김래원 주연의 SBS 드라마 '식객'으로 재탄생된 바 있다. 이번에 개봉되는 '식객-김치전쟁'은 영화 '식객'의 두 번째 이야기로,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김치'를 소재로 삼고 있다.

이번 영화는 조류독감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면역증강 음식으로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우리 전통 음식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맛을 재조명함으로써 한식 요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적인 셰프(요리사) 장은(김정은 본)과 이에 도전하는 '성찬'(진구 분)의 불꽃 튀는 김치요리 대결이 광주시청 문화광장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빛고를 체육관 등지에서 벌어짐으로써, 관객들에게 '김치의 메카'로서 광주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객-김치전쟁' 제작사는 광주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보여준 시민들의 배려와 성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26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김정은, 진구 등 주연배우와 백동훈 감독이 참여한 가운데 삼부작 메가박스영화관에서 시사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치의 보고장인 광주에서 한국 대표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영화를 통해 재조명하고,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제작비 가운데 3억 원을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식객-김치전쟁'이 한식 세계화 열풍을 타고 세계에 알려지면, 많은 외국인들이 맛있는 김치를 맛보기 위해 김치 중추도시인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ongdu. It features a drawing of a person sitting on a large, stylized letter 'A' that is shaped like a traditional Korean 'Gimchi' (kimchi) jar. The tex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Gimchi' and its role in Korean culture.

Advertisement for '신주인수권 및 실권부 최고' (New Share Acquisition and Highest Real Estate).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for '무등빌딩임대' (Mudeung Building Rental).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lists various amen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leasing agent.

Advertisement for '국비교육생모집' (National Education Student Recruitment) by JS Quiz. It lists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cruitment center.

Advertisement for 'Citi 신용대출' (Citi Credit Loan). It features a large red arrow pointing upwards and lists various loan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iti branch.

Advertisement for '부동산 매각 공고' (Real Estate Sale Notice). It lists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al estate agency.